

## 생활 속 이야기 주인공 한마음 잔치

本紙, 주부명예기자단 2006년 춘계수련대회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임경순)은 5월11일 백로주유원에서 2006년 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기자단 화합과 단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수련대회에서 임경순 주부명예기자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포천신문에 다양한 기사를 게재 및 제보하여 건전한 포천사회 건설에 노고가 많은 주부명예기자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처럼 좋은 날씨에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두열 포천신문 전문이사는 축사를 통해 “주부명예기자단의 활동은 우리 생활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나 잘못된 점 등을 주부의 시각에서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 역할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온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

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련대회는 OX퀴즈, 팔행시 짓기,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으며 OX퀴즈는 포천신문과 주부명예기자단 관련 문제와 시사상식 문제 등 총 15문제를 출제하여 실시한 결과 포천동지부 윤미숙, 유기준, 배일선 주부명예기자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주어진 팔행시 ‘지방선거 공명선거 권위자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의 “지역주민 여러분 지방선거라 방심하지 말고 선명하고 슬기로운 선거 거창한 구호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공약으로 명쾌하게 답하는 선견지명 있는 거대한 큰 일꾼 우리 손으로 창출해 냅시다’ 등 모두 40여편의 작품이 출품돼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참석한 주부명예기자단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노래자랑 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5월11일 백로주유원에서 2006년 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기자단 화합과 단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간도 가져 선물을 나누는 등 화합과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박영남 기자 varanase@naver.com

### 자유기고

## 모두가 은혜입니다

박지상(원불교 포천교당 교무)



요즈음의 산천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 어느 시인 화가가 있어 또 어떤 예술로 싱그럽고 청초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해 낼 수 있을까? 그저 눈길 한번 건네면 그대로 무릉도원의 신선이 된 듯 하다. 그래서 성현들은 앞을 다투어 이 즈음에 태어나시고 깨달으시고 부활하셨나 보다.

그러나 현실에 일들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한국의 20대 사망 원인중 1위가 자살이라 하고, 많은 이들은 우리 사회의 양심 부재와 양극화 현상 등의 심각성을 이야기한다.

특히 양극화 현상은 희망격자의 심화로 이어져 빈곤층과 자녀들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것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갖은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이 많기도 하다. 또한 우리 자신도 뭇지 모를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아픔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무엇이 틀어 우리를 이토록 아프고 힘들게 할까?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은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내놓는데 이들이 우리의 구석구석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해 줄 수 있을까?

은혜를 발견할 때이다.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세상에 없는 듯 싶다.

누구와 비교된 나. 누구와 비

교한 내 환경을 잠시 놓고 마음을 돌려 생각해 보면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 숨쉬는 것” 그 하나만 보더라도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임을 느낄 수 있다.

“난리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망에서 시작되고, 평화는 감사와 은혜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 근본적인 은혜를 발견하기에 노력하고 주위 인연들을 보듬고 챙긴다면 어느 순간 세상은 그대로 은혜의 덩치로 다가올 것이다.



## 무용극 ‘꽃잎은 지고’

이미숙무용단이 무용극 ‘꽃잎은 지고’를 무대에 올렸다. 지난 19일 오후7시30분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마련된 이번 공연은 의정부시 아사인 ‘의순공주 이야기’를 무용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 이미숙무용단 음악극 축제 공연

이미숙무용단(단장 이미숙)이 무용극 ‘꽃잎은 지고’를 무대에 올렸다. 지난 19일 오후7시30분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마련된 이번 공연은 의정부시 아사인 ‘의순공주 이야기’를 무용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중국어 조공을 바치던 시기에 의순공주는 남의 나라사람에 조공

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으나 강물에 몸을 던져 죽음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다양한 춤사위와 무대장치로 풀어냈다.

관객들은 강물에 몸을 던지는 장면에서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이번 작품을 준비한 이미숙단장은 “의정부시를 상징할 만한 작품으로 제작했다”고 밝히고 “이번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기문화재단과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시와 대진대학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무용극 ‘꽃잎은 지고’를 감상한 관객들은 의정부시를 홍보하는 작품으로 서울이나 의정부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의 도시 등에 보급하면 좋을 것 같다는 관람평을 내놓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등지상자 달아주기 운동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 야생조수 보호 위해 3년째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회장 장혜광)는 지난 3일 왕방산과 운악산에서 회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지상자(새집) 달아주기 운동을 실시했다.

3년째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탐조 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가까워지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는 반딧불이 복원을 위한 다슬기 방류사업과 하천정화사업, 유해 외래식물인 패지풀 제거사업, 산불조심 캠페인, 한마음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자연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각 읍, 면, 동에서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시장후보 토론회 보도 유권자 선택 도움”

본지 운영위원회 제53차 정기회의 개최

본지 운영위원회 제53차 정기회의가 지난 19일 포천신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개회사에 이어 최호열 발행인 인사말과 윤이용 위원장의 인사말, 포천신문 및 운영위원회 발전에 관한 건 및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지 최호열 발행인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5.31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가졌다”면서 “포천신문 지면을 통해 자세하게 보도하여 유권자들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발행인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입한 취재차량으로 열심히 취재에 임해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포천사회에서 자리매김 했고, 앞으로도 위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통해



본지 운영위원회 제53차 정기회의가 지난 19일 포천신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이용 운영위원장은 “우리 나라의 산업경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원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며 “지난 정기모임 때 자혜원 불우이웃돕기와 위원 친목 도모를 위한 춘계 아우회예 보내준 위원들의 화합과 열정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8@paran.com

# 100% 수출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워싱의 선두주자



정교한 세탁 · 풍부한 노하우

세탁의 혁명!



원주섬유 대표 최인환

원주섬유는 국내 최초로 국내 수출업체에서 양말류를 공급받아 정교한 기술력을 이용해 완벽한 제품을 세계시장에서 수출하며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